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7. 30.(목) 총 4매(본문3, 붙임1)	
담당 부서	국토정보 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한동민, 사무관 이선영, 주무관 장석원 • ☎ (044) 201-3465, 3466	
보 도 일 시		2020년 7월 3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7. 30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한국판 뉴딜 대표과제, “디지털 트윈” …정부와 산업계 힘 모은다

- 31일 디지털 트윈 업계 간담회…민·관 협력 토대로 적극 추진키로
- 국토부, 3차원 지도 등 디지털 트윈 핵심 기반 ‘22년까지 구축 계획

□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‘디지털 트윈*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.

* 3차원의 디지털 공간에 현실공간·사물의 쌍둥이(Twin)를 구현한 것으로,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·예측으로 신산업 지원 및 국토 안전관리 강화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디지털 트윈 산업계 간담회’를 7.31(금) 오후 2시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(학동, LX 서울본부빌딩)에서 박선호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다.

* 참석 :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(이사장 박경열), 공간정보산업협회(협회장 김석중), 주요기업 CEO, 유관기관(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,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) 등

○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주요사업 발표에 이어,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과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.

□ 국토부는 전국 3차원 디지털 지도 등 디지털 트윈 핵심 기반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임을 발표한다.

- 3차원 지도는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 모형(3D 지형지도)과 고해상도 영상지도(25cm→12cm)를 구축하고,
-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는 전국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약 14,000km를 구축한다.
- 또한, 상·하수도,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를 전국 시·군 지역에 대해 구축한다.
- 아울러,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(세종·부산)는 3D 공간데이터와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□ 산업계에서는 공간정보 기업을 대표하여 (주)이지스(대표 김성호, GIS S/W 대표기업) 등이 디지털 트윈 성공을 위한 **산업계 의견, 사업화 전략, 보안기술 적용** 등을 발표하고,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.

＜ 산업계 발표 주요내용 ＞

- ① 디지털트윈 성공을 위한 공간정보 산업계 의견 (이지스 대표이사)
 - 디지털트윈 활용분야, 데이터 통합 및 품질확보 방안, 국토부 역할 등
- ② 3차원 지도와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사업화 전략 (위맵 대표이사)
 - 3차원 지도 활용분야 및 5G·AI·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사업 모델 등
- ③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한 효과적 DB 구축 방안 (새한항업 전무이사)
 - 경제적이고 활용성 높은 DB 구축방안, 법·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
- ④ 공간정보 유통을 위한 보안기술 적용 및 시장화 전망 (인포씨드 대표이사)
 - 공간정보 보안(유출방지) 적용방안, 공간정보 보안기술 시장화 전망

* 이지스(2001년) GIS S/W 대표기업 / 위맵(2020년) 정밀지도 플랫폼 신생기업
 새한항업(1989년) 지도제작 대표기업 / 인포씨드(2015년) 정밀위치 플랫폼 신생기업

- 향후, 국토부는 이날 도출되는 산업계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,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국토정보정책과 이선영 사무관(☎ 044-201-346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디지털 트윈 산업계 간담회 개최계획

□ 간담회 개요

- 일시/장소 : '20. 7. 31(금) 14시 ~ 16시30분 / LX 서울본부 6층(학동역)
- 주최 국토교통부 / 주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
- 주요 참석자
 - 박선호 국토부 1차관,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,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, 최규성 LX공사 부사장, 김수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
 -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, 공간정보산업협회 협회장, 관련 기업(이지스, 새한항업, 위맵, 인포씨드 등 15개 기업) 대표이사 등

□ 주요 내용 : 발표 및 토론

- 디지털 트윈 주요사업 (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)
-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 및 산업계 의견

- ① 디지털트윈 성공을 위한 공간정보 산업계 의견 (이지스 대표 김성호)
 - ② 3차원 지도와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사업화 전략 (위맵 대표 김기태)
 - ③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한 효과적 DB 구축방안 (새한항업 전무 신상철)
 - ④ 공간정보 유통을 위한 보안기술 및 시장화 전망 (인포씨드 대표 권요한)

- 자유토론 : 민·관 협력방안, 정책·제도 개선방안 등

□ 시간 계획

- 14:00 ~ 14:10 : 국토부 제1차관 인사말씀 (디지털 트윈 정책의 의미)
- 14:10 ~ 14:20 :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인사말씀
- 14:20 ~ 14:40 : 디지털 트윈 주요사업 (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)
- 14:40 ~ 15:10 : 산업계 의견 및 사업화 전략 (이지스, 위맵)
- 15:10 ~ 15:20 : Break Time
- 15:20 ~ 15:50 : DB 구축방안, 보안기술 적용방안 (새한항업, 인포씨드)
- 15:50 ~ 16:30 : 자유토론 및 마무리